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지난 달 靑 주시 大 규모 외인 자  
금 유출..코로나 19 우려
- ◇ (칼럼)-'자살골' 트럼프의 계산과 딜러들  
의 계산
- ◇ (초점)-바이든 승리에 베팅하는 시장..美  
대선 결과와 원화의 向방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진에서 공개한 미사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측된다. (로이터/조선중앙통신 장면)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53.3	1.4%	0.3%	-3.5%	유로	1.1824	0.9%	5.5%	-2.3%
100엔 대비	1,082.7	2.3%	-1.9%	-4.4%	엔	105.59	-0.2%	2.9%	0.9%
유로 대비	1,352.1	1.0%	-4.3%	-1.3%	위안	6.7990	0.2%	2.4%	-1.3%
위안 대비	170.77	0.6%	-3.0%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8,586.90	3.3%	0.2%	22.3%
코스피	2,391.96	2.8%	8.8%	7.7%	나스닥	11,579.94	4.6%	29.1%	35.2%
코스닥	871.62	2.8%	30.1%	-0.9%	S&P500	3,477.13	3.8%	7.6%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80.00	4.1%	4.9%	15.8%
국고채 3Y	0.907%	6.1bp	-45.3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207%	10.0bp	-27.3bp	-40.4bp	미국채 2Y	0.157%	2.4bp	-140.4bp	-93.7bp
국고채10Y	1.543%	11.3bp	-14.0bp	-26.5bp	미국채 10Y	0.779%	7.5bp	-113.1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0.60	9.6%	-33.5%	34.5%	한국 5Y	23.5bp	-1.9bp	2.4bp	-17.0bp
금(현물)	1,929.43	1.6%	27.2%	18.3%	일본 5Y	15.3bp	-0.5bp	-2.5bp	-4.0bp
TR상품지수	2,487.65	1.9%	0.1%	4.8%	중국 5Y	37.7bp	-8.7bp	7.0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0월 12일(월)>

- 금감원,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간(10:00)
- KDI 경제동향(12:00)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5:00)

### <13일(화)>

- 한은, 9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14일(수)>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07:30)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 회의
- 기재부 장관·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영상)(19:30)

### <15일(목)>

- 금감원,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8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 외국인 인구 전망: 2017~2040(12:00)

### <16일(금)>

- 한은, 9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통계청, 9월 고용동향(08:00)
- 한은, 국회 국정감사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3:3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0월 12일(월)>

- 일본, 9월 은행대출·기업상품가격지수·기계류주문 (08:50)
- 미국 휴장

### <13일(화)>

- 중국, 9월 수출·수입·무역수지
- 일본, 10월 로이더단칸 제조업지수 (08:50)
- 미국, 9월 CPI (21:30)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21:30)

### <14일(수)>

- 미국, 9월 연방예산 (03:00)
- 일본, 8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8월 산업생산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9월 PPI (21:30)

### <15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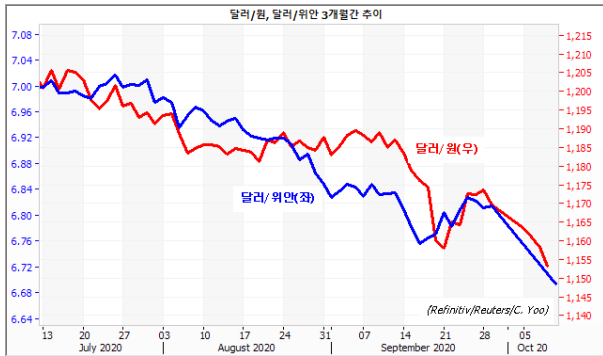
- 유로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16일까지)
- 중국, 9월 PPI·CPI (10:30)
- 미국, 10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1:30)
- 미국, 9월 수입·수출물가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16일(금)>

- 미국, 9월 소매판매·산업생산 (21:30)
- 미국, 8월 기업·소매재고 (23:00)
-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23: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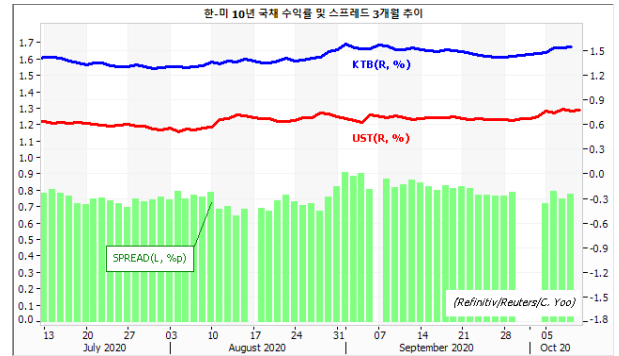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미국 대선을 앞둔 큰 돌발상황만 없다면 달러/원 환율은 연저점인 1150.6 원과 1150 원 선을 하향 돌파하며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들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쪽으로 포지션을 잡은 가운데 글로벌 달러 가치가 일찌감치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은 영향이 크다.
- 그에 덧붙여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 선두 주자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을 잘 억제하며 경제 활동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어, 이래저래 원과 위안 모두 달러 약세의 흐름을 잘 따르고 있다.
- 눈여겨볼 해외 이벤트로는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와 미국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그리고 유럽연합(EU)과 영국 사이의 브렉시트 무역 협상 마감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시장에 이견이 없지만, 회의 이후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따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 시장에 영향을 줄 경제지표로는 중국의 수출입 지표 발표를 들 수 있다. 수출은 이미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기에 관심은 오히려 수입 동향에 쏠릴 수도 있다. 중국의 수입은 내수 회복 여부를 나타내며, 한국 등 대중국 수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주중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협상 움직임 등과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시장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금통위 회의 이후 이 총재의 스탠스에 또 한 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8월 회의록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에 좀 더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의 금융시장 안정세를 감안하면 금통위의 스탠스가 금융불균형 쪽으로 좀 더 기울어도 이상할 게 없다.
- 하지만 8월의 경험,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커지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 총재가 시장안정에 좀 더 신경을 쓸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14일 금통위 회의와 16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확인될 이 총재의 스탠스가 이번 주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재정부양책 관련 트럼프의 스탠스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정부양책 협상 중단 선언 이후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스탠스를 돌리면서 증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11월 대선 전 협상 타결 가능성은 미궁에 빠졌지만 누가 당선되든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며 증시는 달려가는 모습이다.
- 증시 반등 흐름은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코스피지수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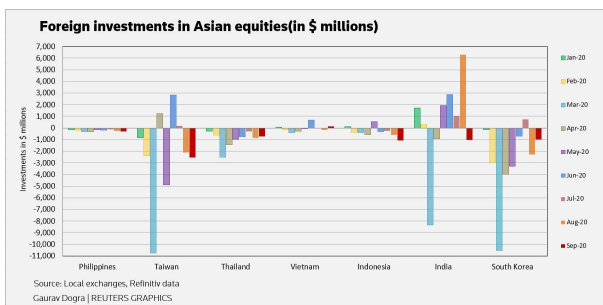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그래프)-지난 달 또 주식 대규모 외인 자금 유출..코로나 19 우려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달러 강세로 리스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지난 9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주식을 4개월만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증권 거래소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총 65억달러어치의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주식을 순매도해 지난 5월 이후 첫 월간 순매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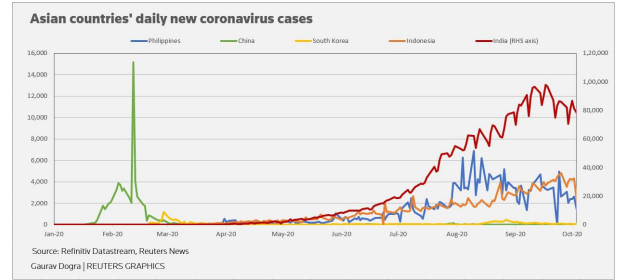
프랭크 벤지트라 소시에테테제너랄 아시아 주식 전략 헤드는 미국의 기술주 조정과 유럽내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지난달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대만 주식과 한국 주식에서는 미국 기술주 매도세 영향으로 각각 25억달러, 10억달러가 빠져나갔다.

인도 주식과 인도네시아 주식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에 각각 10억달러씩 유출됐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태국 주식과 필리핀 주식에서는 각각 7억 3,200만 달러, 3억 600만달러가 유출됐다.

한편 베트남 경제가 효과적인 코로나 19 억제에 힘입어 3분기에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베트남 주식으로는 1억 3,500만달러가 유입됐다.

### (칼럼)-'자살골' 트럼프의 계산과 달러들의 계산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안 협상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중단시켰다는 트윗을 올려 시장을 뒤흔어 버렸다.

그는 민주당이 코로나 19와 관련도 없는 구제금융 등에 총 2조 4천억달러의 합의안을 요청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1조 6천억달러 수준의 관대한 재정 부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불과 3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1조 6천억달러 부양안을 고수하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어차피 미국에 도움이 되니 더 많은 액수로 가자'고 언급했던 것을 많은 이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결정에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대선을 3주 앞두고 왜 이런 자살골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2조 4천억달러가 됐든 1조 6천억달러가 됐든 합의만 이뤄지면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유권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낮추면 낮추지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명백해 보인다.

#### ▲데이브 포트노이의 분석과 지난해 8 월의 기억

'개인 투자자들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하는 데이브 포트노이의 분석도 일견 일리가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질 경우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려 이길 수 없고, 결국 태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보면서 지난해 8 월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8 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30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시장을 뒤흔었다가 불과 며칠 후 해당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는 8 월 24 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적'이라고 지칭하며 분노의 트윗을 날림으로써 다시 한번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 그리고 이틀 후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해 주식 숏 포지셔너들을 응징했다.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를 크게 개의치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과 주가를 연동시켜 보고 있는 한 무역 협상의 판을 깨 주식시장을 망가트리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행보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주가가 추락할 때를 '줍줍'의 기회로 삼았다.

포트노이의 트윗 역시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감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에도 같은 시나리오를 기대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부양안 협상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되돌린다면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 ▲재정 부양안 대신 대법관 인준에 집중하는 트럼프

이번 결정의 진짜 배후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주목한 건 이날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11 월 3 일 치러지는 대선 때 투표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7%,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1%로 나왔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지난달 29 일 두 사람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 뒤다. 앞서 이뤄진 조사에서 8%P에 그쳤던 격차가 두 배로 벌어졌다. 지난달 첫 TV 토론 역시 바이든 후보(57%)가 트럼프 대통령(26%)보다 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국내에서도 TV 토론을 지켜본 후 '이번엔 트럼프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사람이 적지 않은 듯하다.

대선까지 3 주 남았다. 지지율 격차는 최대치로 벌어졌고 역전을 기대했던 TV 토론은 재앙과도 같은 결과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양성 판정 이후 분위기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재정 부양안 협상을 중단시키고 강조한 것이 연방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배럿의 인준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나의 놀라운 연방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배럿 인준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작아지는 시점에 대법관을 지명하는 건 결국 대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대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선거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결과 불복으로 연방대법원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수 성향의 대법관 지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민주당이 재정 부양안과 연방대법관 임명을 연계시켰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지명을 선택했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불복을 영두에 둔 전략 마련에 나섰다는 의미이다.

▲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달러를 '모험 걸 이유 없어'

채권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영두에 두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 누구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다.

미국의 권력이 평화적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패배한 후보의 인정이 필요하다. 투표 결과가 불투명하고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백업플랜'이 가동한다. 지난 2000년 미국 대선과 2006년 이탈리아 선거에서 이 백업플랜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은 최고사법부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도 분명하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론의 여지 없는 완승을 거둘 경우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다. 시장은 주요 기관들의 예측대로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예상 밖 접전이 펼쳐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치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가뜩이나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할 여지가 큰 상황이어서 11월 장세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는 교착 상황의 경우에만 달러 강세, 채권금리 하락 시나리오가 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채권 달러들 입장에서 굳이 지금 모험을 걸 이유가 없다.

바이든 후보가 확실하게 당선될 경우 채권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면 여기서 한 박자 쉬었다가 연말을 노리면 된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난장판이 펼쳐진다면 그때 가서 움직여도 된다.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금리 상승 위험을 감수할 만큼 기대수익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초점)-바이든 승리에 베팅하는 시장..美 대선 결과와 원화의 향방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은 벌써 선거 이후 상황을 가늠하는 등 본격적으로 영향권에 들어섰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선거 직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미국 대선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판정에도 추가 부양책 타결 기대에 위험자산과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승리에 베팅한 결과라는 해석도 곁들여졌다.

6일 달러/원은 9개월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달러 약세에 더해 위안화 가치가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로 오르면서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 ▲ 바이든 승리 = 달러 약세?

미국 대선 재효는 10월 내내 시장을 긴장시키면서 변동성을 자극할 전망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시장은 바이든 후보 당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일(현지시간) 발표된 로이터/임소스 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10%p 앞서 1개월 만의 최대 격차를 나타냈다.

JP 모건은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은 바이든 후보 승리 확률을 더 크게 감안하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 승리는 금융시장에 큰 서프라이즈가 된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달러/원 방향에 주로 영향을 미칠 달러의 경우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노무라는 미국 대선 관련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승리는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달러 약세 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대선뿐 아니라 동시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에 더 큰 변수다. 특히 공화당이 지금까지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바이든 후보 주요 공약인 확대 재정과 증세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 승리에 따른 달러 약세 전망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유안타증권 조병현 애널리스트는 관련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책은 미국 증시에 차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바이든 정책은 한국,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이외 시장에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면서 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달러 약세에 도움이 되는 소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달러 약세 전망에 대한 힌트는 무역과 통상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 ▲ 위안화 강세 = 원화 강세?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차기 정권이 마주하게 될 정책적 도전 중 하나로 미-중 마찰을 꼽았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지만 국가 안보와 기술, 인권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책과 유사해 중국과의 마찰이 유지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에도 바이든 후보는 정책 불확실성이 낮고 관세 부과를 선호하지 않는 점에서 미-중 갈등 구도 자체가 금융시장을 과도한 불안에 떨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후보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을 직접 견제하기보다는 동맹국 연대나 다자 협상 틀 안에서 간접적인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승리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 재정정책 완화와 함께 무역 긴장 리스크 완화를 꼽았다.

이에 글로벌 달러 약세와 함께 위안화 강세가 진행되고 원화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위안화는 최근 경기 반등과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외인 자본 유입에 더해 중국 정부의 쌍 순환 정책에 따른 내수 강화 정책 등에 절상 압력을 키워왔다. 이런 여건에서 통상 갈등 완화 전망이 더해지며 위안화 강세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협상을 통해 유연하게 대중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중국도 위안화 절상 및 시장 개방 등을 통해 갈등 완화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최근 위안화의 가파른 절상이 이같은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러/원도 위안화 흐름에 동조하면서 바이든 후보 당선 시 1140 원까지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화 약세 변동성을 자극할 요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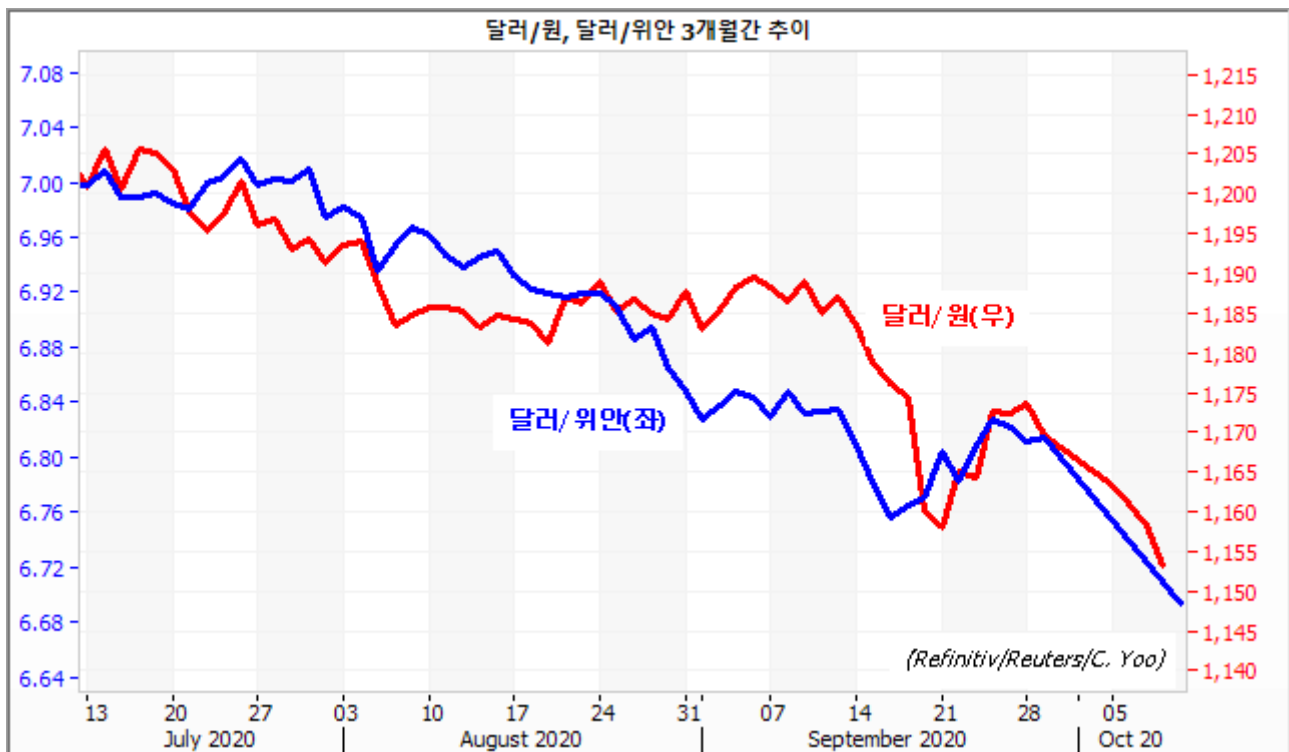
노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미사일 테스트를 강행할 수 있다"면서 "다만, 바이든은 국내 이슈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북한과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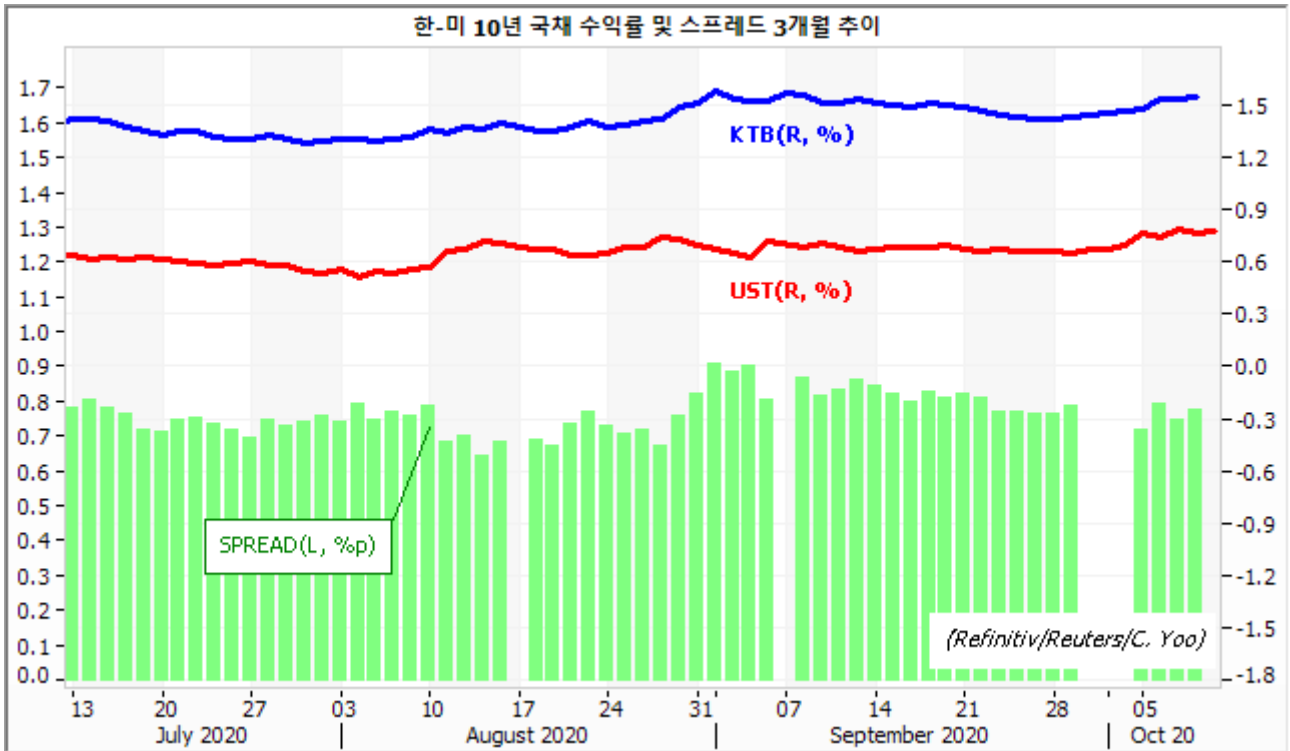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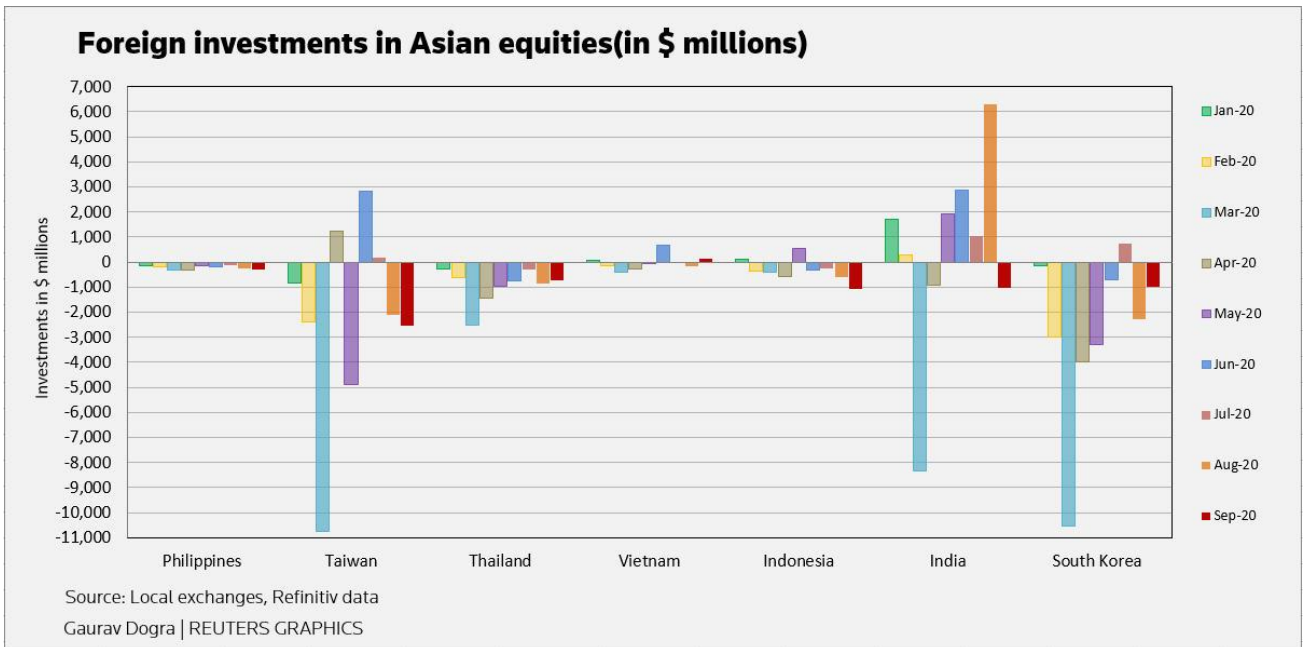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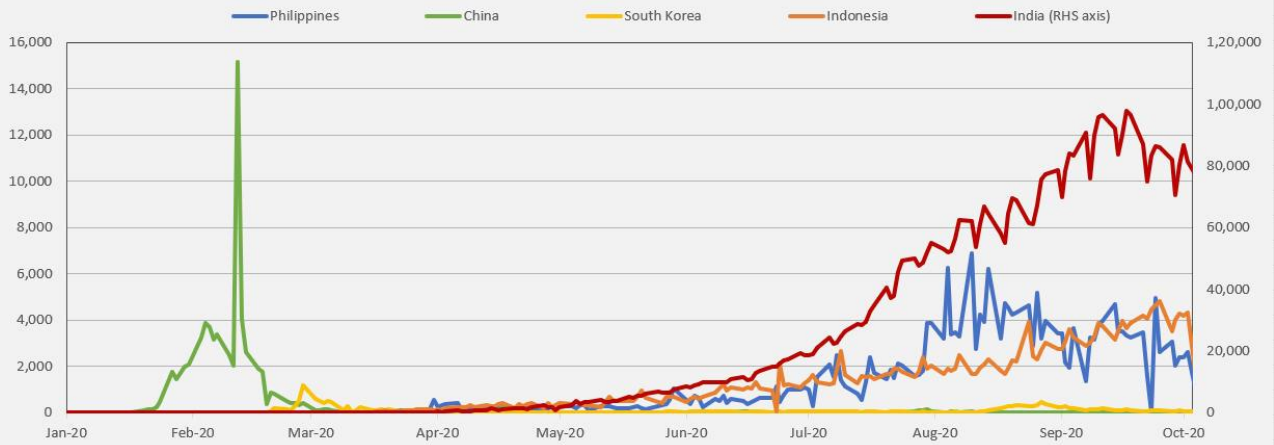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Asian countries' daily new coronavirus case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Reuters News  
Gaurav Dogra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